

객석 auditorium

200510

COVER STORY

내향유 바이올리니스트 사라 장

From Abroad

이탈리아 볼차노 부조니 콩쿠르 현재 취재
파리 국립 오페라 시즌 개막작 '코서 판 루테'
북경에서 만난 발레리 게르기에프

People & Issue

서울음대 첫 여성 학장 신수정 인터뷰
존재를 노래한다 - 마티아스 괴르네
女배우 윤석화 & 男배우 안석환 이야기

www.gaeksek.com



Special Feature

모차르트로 돌아온 안네 소피 무터



ISSN 1228-4041

목표는 아시아 최강 음악원

“210명이 정원입니다. 더 받지 않을 겁니다. 정원을 늘리지 않는 대신, 소수정예로 최고의 음악가들을 배출해 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아시아권은 클래식, 특히 오케스트라 미개척지가 많습니다. 두 나라 합하면 세계 인구의 절반에 육박하는 거대한 중국과 인도에는 경제 발전과 더불어 앞으로 수많은 오케스트라가 생겨날 것입니다. 우리 음악원 졸업생들은 미래의 아시아권 오케스트라의 악장이나 수석 자리에서 아시아 오케스트라의 비전을 이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오히려 솔리스트는 선택이죠.”

지난 9월 초, 2001년 설립된 싱가포르 용시토음악원(Yong Siew Toh Conservatory Of Music, www.music.nus.edu.sg)의 진 에이큰(Gene Aitken) 학장이 음악원 교수 3인과 동행, 서울에서 마스터클래스를 가졌다. 물론 아직 신생인 음악원의 홍보가 목표지만, 올해 말 오디션은 통해 한국 학생을 선발할 예정이기도 하다. 오디션은 앞으로 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며, 주로 연주 동영상을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서울뿐만 아니라 지방 학생들에게도 폭넓게 문호를 개방하려는 의도에서다.

“용시토음악원은 싱가포르 국립대(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의 옴대로 나라의 전폭적인 지원을 얻고 있어서 재정적으로 탄탄합니다. 학생에게는 학비 무료로 숙식이 제공되고, 별도의 장학금도 지급됩니다. 또 하나 세계 어디에서도 보기 힘든 용시토음악원만의 특점이 있습니다. 싱가포르에는 세계 최고의 현악기 컬렉터가 있습니다. 그분이 용시토음악원 교수와 학생들을 위해 악기를 무상 대여해 주고 있죠. 피아노요?” 에이큰 학장과 동행한 피아노 교수 토마스 헤흐트(Thomas Hecht)가 거른다. “스타인웨이를 비롯, 학생 한 사람 앞에 두세 대가 돌아갈 정도입니다.”

용시토음악원 졸업생은 싱가포르 국립대 졸업장을 받고, 피바디 대학원 과정에 추천된다. 사실 피바디의 유일한 아시아 분원인 셈. 물론 교수진들도 대부분 피바디 출신이다. 에이큰 학장, 헤흐트 교수도 미국 출신. 싱가포르 국립대는 여러 기관에서 발표하는 세계 대학 랭킹에서 아시아권에서는 도쿄대, 교토대 등과 함께 자주 100위권 안에 이름을 올리는 대학이다. 우리 대학 중에는 아직 100위권에 드는 학교가 없다고 하던가?

“정원 210명 내에 레코딩 엔지니어링 과정도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스튜디오도 짓고 있는데, 역시 아시아 최고의 스튜디오 중 하나가 될 겁니다. 나이 많은 학생도 받습니다. 엔지니어라 수학이나 물리학 전공자면 좋겠지만, 무엇보다도 귀가 중요하겠죠.”

적은 정원이라 학생은 그야말로 신중에 신중을 기해 선발한다. 따라서 한 나라에서 한 번 오디션에 한 명을 뽑는 경우도 허다하다. 용시토음악원은 아시아만이 아니라 오세아니아권에서도 학생들을 모집한다.

“시설도 일류라고 자부합니다만, 다른 무엇보다 학생들의 음악성을 어떻게 길러 내느냐가 문제겠죠. 한국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테크닉이 우수한 학생들은 아시아권에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저는 그런 기본 소양 교육이 철저히 되어 있는 학생들이 좋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훌륭한 음악인으로서 평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것이 우리 음악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생각합니다.” 글·박정준 기자(jun@) 사진·김문배



Focus On

Dr. Gene Aitken

Director of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of Music, Singapore

“The maximum enrollment of the Yong Siew Toh Conservatory in Singapore will be approximately 210 students. Our goal is to work with these talented students to help them become some of the best musicians in Asia. As we know, Western classical music is still not very developed in many countries in Asia. Yet almost half of the world’s population lives in Asia, and with the rapid economic development we are likely to see the formation of many new orchestras in this part of the world. In the future, we hope that Yong Siew Toh Conservatory graduates will lead these orchestras as musicians and soloists.”

In September 2005, the Director of Yong Siew Toh Conservatory, Dr. Gene Aitken, was in Seoul with three professors to conduct master classes and to promote the new Conservatory to prospective Korean students. The Conservatory will be holding an audition in Seoul later this year, and welcomes applicants from Seoul as well as other cities in Korea.

Yong Siew Toh Conservatory is a faculty of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NUS) and was established by the Singapore government in 2001. Many international students study at the Conservatory on full or partial scholarships. Conservatory students also get to play on first-class instruments, including antique string instruments on loan from a Singaporean private collector. What about pianos? “We have a Steinway in almost every practice room.”

Students will graduate from Yong Siew Toh Conservatory with a Bachelor of Music degree. Through its collaboration with the Peabody Institute, outstanding graduates may be awarded scholarships to pursue graduate studies at the Peabody Institute in Baltimore, USA. This is the first such music collaboration between the NUS, a leading university in Asia and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in the USA. The National University of Singapore is ranked as one of the best 18 universities in the world along with Tokyo and Kyoto Universities.

“In addition, we will offer a recording arts programme. The new music facility, which is currently under construction, will have one of the most comprehensive recordings studios in Asia. In time, we will establish a music programme for graduate students as well.”

“We have excellent facilities, but how we teach and develop the students’ musical talent is our most important issue. In Asia, including South Korea, many students have developed a great amount technique on their instruments, a very important foundation skill to have in playing. We want to nurture these students so that they can grow to become great musicians.”